

서울시 푸드뱅크(Food Bank)의 활성화와 운영개선

- | | |
|---------------------|---------------------|
| ■ 푸드뱅크 사업현황 | ■ 서울시 푸드뱅크 실태와 개선과제 |
| ■ 푸드뱅크 사업의 사회적 기대효과 | ■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
| ■ 푸드뱅크 사업의 비용과 편익 | ■ 푸드뱅크 운영개선 방안 |

푸드뱅크 사업 현황

푸드뱅크란 여유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 체계를 통칭함.

- 푸드뱅크는 1976년 미국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Second Harvest Food Bank 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는 북미, 유럽 등 서구선진국에 일반화된 것으로 주로 민간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민간 복지기관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결식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본격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함.

정부의 지원을 받은 푸드뱅크는 전국-광역-기초 푸드뱅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개 전국, 16개 광역, 216개 기초 등 총 233개 푸드뱅크가 운영중임. 서울시에는 1개의 광역푸드뱅크와 26개의 기초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음.

- 전국-광역-기초 푸드뱅크는 각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서울시)-기초자치단체(자치구)가 관리를 담당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 복지시설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구분	관리주체	사업주체
전국 푸드뱅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광역 푸드뱅크	시·도(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기초 푸드뱅크	시·군·구(자치구)	복지시설 및 단체

전국푸드뱅크는 전국단위 대규모 기탁식품 배분업무, 사업수행을 위한 총괄조정, 홍보·교육·실적관리 등 기반구축 업무를 주로 담당함.

- 이에 반해, 광역푸드뱅크(서울시 단위)는 광역단위의 대량 기탁업체 발굴 및 배분,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관리·지원·교육, 기초푸드뱅크와 전국푸드뱅크를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담당함.
- 기초푸드뱅크(자치구 단위)는 기탁받은 물품을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최일선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서울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관에서 기초푸드뱅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음.

푸드뱅크 사업의 사회적 기대효과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는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능임.

- 푸드뱅크 사업은 결식계층을 일차적인 타겟으로 하고 있음. 199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기탁량이 점차 증가하여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 전국의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지원받은 인원은 약 85만명에 이름.
- 어려운 이웃들이 푸드뱅크 사업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일차적으로 결식을 방지하고 이들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 실제로 푸드뱅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푸드뱅크 이용에 따른 혜택으로 16.6%가 '배고픔 감소'를 지적하고, 2.4%는 '병원방문이 줄었다'고 응답함.
- 또한 식비지출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설문조사 결과 푸드뱅크 이용 후 실제로 식비지출액이 감소하여 푸드뱅크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푸드뱅크 사업에 따른 두 번째 기대효과는 자원절약 효과임.

- 잉여식품을 푸드뱅크에 기탁하여 음식물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버려지는 음식물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음.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연간 410만 톤이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규모만도 한해 약 14조 7천억원에 이름.

- 푸드뱅크 사업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전체 생활 폐기물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1998년도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식품업체의 대부분이 잉여 음식물을 재활용하기보다는 폐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푸드뱅크 사업의 세 번째 기대효과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임.

- 기탁자 입장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외계층을 도왔다는 만족감을 얻는 효과가 있음.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한 업체 대상 조사에 의하면 환경보호나 경제적 이득보다도 사회적·심리적 만족감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음.
- 푸드뱅크 사업은 또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기탁식품의 운반, 기탁 후원활동이나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등에 자원봉사로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

푸드뱅크 사업의 비용과 편익

푸드뱅크 사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많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이 결과로 나타나는 편익보다 크다면 사업의 의의를 찾기 어려움.

- 푸드뱅크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는 푸드뱅크를 실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등) 이외에, 기탁자 입장에서 푸드뱅크에 기탁함으로써 포기하는 식품에 대한 비용, 정부입장에서 푸드뱅크 운영 지원금 등이 있음.
- 한편 편익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이나 자원절약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탁업체의 이미지 제고, 저소득층 건강증진 효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과 같은 간접적·이차적 편익들도 있음.
- 기탁자, 이용자, 푸드뱅크 운영자, 정부 등 각 주체별로 발생 가능한 비용과 편익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편익	비용
기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식품 처리비용 절감 · 정부의 세제 혜택 · 기업이미지 광고효과 · 사회 기여에 대한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에 식품을 제공함으로 포기하거나 감소하는 이윤 · 기탁에 대한 심리적 비용
이용자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지출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 ·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지불하는 총비용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 · 개인 및 단체 기부금 · 사회 기여에 대한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시설·설비비, 인건비, 운영비)
정부 및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재활용 효과 ·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 · 쓰레기 감량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감소 · 의료비 보조 감소 · 민생안정 · 국가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투자비용 및 일회적 후원금 · 정부의 주기적 보조금 및 세제혜택

푸드뱅크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푸드뱅크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계량화가 가능한 일차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계산한 결과, 2001년을 기준으로 총 5,5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기에 계량화가 어려운 편익들, 예를 들어 사회기여에 대한 만족감, 국민복지 증진, 민생안정과 같은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푸드뱅크의 경제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푸드뱅크 실태와 개선과제(1) : 기탁 측면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1년간 서울시 기탁실적은 약 34억원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기탁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 기탁금액의 6~20배에 달하며, 서울지역 식품산업 매출액 천원당 153원이 기탁된 것으로 상대적인 기탁금액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 높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탁총액(천원) ¹⁾	3,417,455	511,496	500,860	445,613	314,990	351,066	152,324
전국기여도(%)	20.1	3.0	3.0	2.6	1.9	2.1	0.9
서울실적 대비	100	15	15	13	9	10	5
GRP(천원당) ²⁾ 대비	3.0	1.6	2.7	1.7	2.6	2.8	0.6
식품산업매출액(천원당) ³⁾ 대비	153.0	39.2	79.8	25.5	61.5	52.4	31.0

1) 2002.7~2003.6(자료: 전국 푸드뱅크 내부자료 및 푸드뱅크 DB)

2) 3) 2001년 기준

그러나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713개소로 많은 편이지만, 지역내 사업체수 대비 참여율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임.

-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 1년간 서울지역내 식품관련 사업체 천개소당 398개소가 푸드뱅크에 참여해 39.8%의 참여율을 보임. 이는 부산의 17.2% 다음으로 가장 낮은 참여율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탁회원수 ¹⁾	713	97	274	175	131	149	90
전국기여도(%)	15.5	2.1	5.9	3.8	2.8	3.2	2.0
서울실적 대비	100	14	38	25	18	21	13
지역내 사업체 ²⁾ 대비 사업체 회원수(천개소당)	397.8	171.8	679.2	428.3	574.3	559.6	493.9

1) 2002.7~2003.6(자료: 전국 푸드뱅크 내부자료 및 푸드뱅크 DB)

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2002년 기준) 및 유통업체(2003년 기준)

서울시 푸드뱅크 실태와 개선과제(2) : 운영 측면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재정 등 기초자원은 타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임.

- 서울시는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에 대부분 1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설 및 장비도 타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임.

- 이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푸드뱅크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서울시는 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여 모든 푸드뱅크에 냉동탑차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지역	인력				시설 및 장비				
	담당직원			보조 인력	일반 저장고	냉장, 냉동고		냉동탑차	
	소계	전담	겸직			전용	겸용	전용	겸용
서울	1.2	0.9	0.4	2.4	0.8	0.8	0.3	0.9	-
부산	0.6	0.2	0.5	11.6	0.2	0.7	-	0.5	0.06
대구	1.8	0.1	1.6	0.4	0.07	0.5	0.1	-	-
인천	0.5	0.2	0.3	0.4	0.2	0.6	0.3	0.4	0.3
광주	1.2	0.2	1.0	3.3	0.7	0.5	0.5	0.8	-
대전	1.0	0.5	0.5	4.6	0.2	0.2	0.7	0.3	-
울산	0.3	0.2	0.2	0.7	na	na	na	na	na

자료 : 전국푸드뱅크 내부자료

그러나 자원봉사나 공익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이 저조하고, 푸드뱅크 전담인력이 기관내 다른 업무로 인해 푸드뱅크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전담인력이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기초푸드뱅크 업무를 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임.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푸드뱅크 운영주체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관내 다른 업무와의 인력 및 자원배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푸드뱅크의 운영재원을 전적으로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자원확보 노력 및 자치구 지원이 제한적임.

- 서울의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 운영재원의 평균 92.5%가 서울시 지원금이며, 소속기관의 자체 예산이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4.7%에 불과함.
- 자치구의 재정지원도 미미함. 자치구 가운데는 강남구가 유일하게 2003년부터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푸드뱅크 실태와 개선과제(3) : 배분 측면

기탁물품 배분은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법인·단체의 순으로 많이 배분되어 전체 기탁물품의 대부분이 주로 시설중심으로 배분된 반면, 개별이용자에게 배분된 비율은 2.2%에 불과함.

- 그러나 이용시설이나 법인·단체에 배분된 물품 중 일부는 다시 지역사회내 재가보호 가정에 배분되기 때문에 실제 개별이용자에게 배분된 비율은 더 많음.
-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 1개 기초푸드뱅크가 물품을 배분한 복지시설은 평균 22.6개소이며, 개인별로 지원하는 개별이용자는 평균 99.7명임.

서울시내 26개 기초푸드뱅크 실태조사 결과, 기탁물품의 약 61%는 권역내 다른 복지시설이나 단체로, 그리고 9%는 개별이용자에게 배분되고,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는 기초푸드뱅크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음.

- 이는 현재 기초푸드뱅크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미 결연·후원 사업과 같이 푸드뱅크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이나 재가보호 대상자를 위한 도시락 배달, 밀반찬 서비스 등에 식품이용 요구가 높기 때문에 추축됨.
- 그러나 기초푸드뱅크는 각 자치구별로 지정되어 운영되며 기초푸드뱅크는 해당 자치구에 대한 배분책임을 맡는 센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기탁물품의 상당부분을 소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현재 푸드뱅크는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각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푸드뱅크에서 기탁식품을 배분하는 대상은 시설의 경우 관내 모든 시설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별 이용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복지시설 입소자는 수급자이고 재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또한 대부분 수급자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정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각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푸드뱅크의 식품 기탁은 개인 기탁보다는 주로 식품업체나 유통업체 등 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에는 대형 유통업체 및 식품관련 업체 등 잠재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함.
- 식품기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품기탁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정비와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함.

현재는 기탁된 식품으로 인해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지도가 높은 대형 업체일수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기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탁업체의 보호 및 푸드뱅크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여 처리중임.
- 식품기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 민간단체에서 정부주도형 사업 운영에 반대하여 입법이 늦어지고 있음.

푸드뱅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서구와 같이 기부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함.

- 푸드뱅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방송이나 신문 등 파급효과가 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방송이나 신문을 통한 공익광고, 홍보책자 작성 등 정부차원의 홍보사업을 확대하며,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기획이 효과적임.
- 프랑스에서는 수재의연금 모금방송과 같은 형태로 푸드뱅크 기탁모금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방송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자주 기획하여 기탁모금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이벤트와 계몽사업을 하는 외국사례도 있음. 미국의 우편배달부 협회는 매년 ‘Food Drive Day’를 지정하고 이날 우체부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우편함 옆에 기부된 음식들을 모으는 행사를 하고 있음.

푸드뱅크 운영 개선방안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기초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함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함.

- 서울시 푸드뱅크는 타시도에 비해 전담인력은 잘 갖추고 있으나, 보조인력의 활용은 저조한 편임.
- 비교적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공익요원, 공공 및 자활근로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해야 함. 푸드뱅크 사업의 상당 부분이 물품수거 및 이동 등 단순업무이므로 보조인력을 이들 단순업무에 투입하고 전문인력은 홍보 및 관리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한편, 현재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의 다원화가 필요함. 기관 자체의 후원금·기부금을 발굴하고, 식품 뿐 아니라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기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푸드뱅크 사업은 지역으로부터 기탁물품을 받아 지역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복지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내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학교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요자를 발굴함.
- 푸드뱅크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각 자치구 단위 기초푸드뱅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도 각 자치구 구민이 된다는 점에서 자치구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자치구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태도 및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특히 강남구 사례에 의하면, 자치구의 지원이 재정적 지원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인식개선이 보다 중요함.

기초푸드뱅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내 푸드뱅크 사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초푸드뱅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들이 푸드뱅크 업무를 지역내 사업거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체 프로그램의 하나 정도로 간주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푸드뱅크 전담직원이 복지관내 다른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고, 기탁된 물품의 약 30% 정도를 자체 프로그램에 소비하고 있음.

-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기존 복지시설에 기초푸드뱅크 업무를 위탁하는 체계 하에서는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푸드뱅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관장의 푸드뱅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현재 푸드뱅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장 대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관리주체인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에서 기초푸드뱅크의 역할, 자체 소비 가능범위 등 기초푸드뱅크의 역할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적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정상화함.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제고함.

- 현재 푸드뱅크는 물품이 확보되는 대로 인근의 복지시설이나 재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이나 시점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푸드뱅크 운영 및 배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조리된 음식과 같이 신속한 소비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냉장 및 냉동설비를 확보하고 수급관리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함.
- 무료 배분형식의 푸드뱅크 이외에 기탁받은 물품을 저렴한 비용(또는 무료)으로 판매하는 푸드마켓을 적극 활용함. 푸드마켓은 수익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푸드뱅크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임.
- 푸드뱅크가 실제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기탁자를 발굴하여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도 효과적임. 예를 들어, 음식점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음식점의 이용권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이용자들은 이 이용권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푸드뱅크의 장기발전방향

- 푸드뱅크 사업을 앞서 시작한 외국은 민간부문에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가 주도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직 민간복지의 기초가 미약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푸드뱅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푸드뱅크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기구 또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 완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경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
02-2149-1253
khkim@sdi.re.kr